

■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5탄

# “문화·전통·시대 따라 詩의 기준 달라져 ‘무엇이 시인가’보다 ‘무엇이 시적인가’에 관심을

## 나희덕 조선대 교수 ‘현대시와 예술적 상상력’

‘길을 잃어버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터덜 걸어간 길 끝에 /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 / 막무가내의 어둠속에서 /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 산속에서 밤을 맞본 사람은 알리라 ... 먼 곳의 불빛은 /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나희덕 ‘산속에서’ 中)

시와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작가들의 ‘발칙한’ 발상들을 들려준 시인의 ‘일탈(?)’은 ‘시란 무엇인가’ ‘좋은 시와 나쁜 시는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을 던졌다.

특히 나 시인은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해체와 진화, 그리고 이 같은 새로운 변화들이 작가의 상상력과 현대시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 지 생생하게 들려줬다. 20세기 초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대상’을 재현하는 전통적인 창작행위를 거부하고 자신의 상상력이나 관념을 형상화 한다는 것이다.

“이제 예술은 영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이디어, 사물, 기성품들을 ‘선택’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문화, 전통, 시대에 따라 시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시적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육설도 ‘잘 쓰면’ 얼마든지 미학적인 시가 될 수 있어요.”

그에 따르면 현대시의 매력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뒤떨린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적 감흥을 주는 데 있다. 황지우의 ‘호명’, 함민복의 ‘광고의 나라’, 박남철의 ‘지상의 인간’, 김경주의 ‘곤조 GONJO No 5’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녀 역시 3~4년 전부터 서정시의 익숙한 문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희덕 다음’의 한계를 벗어나 세상과 부딪치고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변신은 ‘존 말코비치되기’ ‘쇠라의 점묘화’ 같은 일련의 시편에서 엿볼 수 있다.

끝으로 나 교수는 “좋은 시란 산문처럼 한번에 읽어 이해가 되는 것 보다는 오랫동안 곱씹어보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중층적 구조를 지니는 것”이라면서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춘 환경에 먼저 이방인으로서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6월 23일 오후 4시 빛고을 문화관에서 열리는 여섯번째 문화나무 상상강좌에서는 뮤지컬 ‘렌트’, ‘킴블러’ ‘아이다’ ‘맘마미아’ ‘명성황후’ 등을 제작한 뮤지컬 프로듀서 박명성 대표(신시뮤지컬 컴퍼니)가 참석해 ‘콘텐츠개발과 한국 뮤지컬의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

이날 강연은 나희덕(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씨가 ‘현대시와 예술적 상상력’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6일 열린 문화나무 상상강좌에서 시인 나희덕(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씨가 ‘현대시와 예술적 상상력’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템플스테이 10년’

참가자 매년 늘어 70만명 돌파  
한국 대표체험 프로그램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외국인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인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템플스테이를 총괄하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시작 당시 2558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2010년 17만2954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만4738명이 참가해 지금까지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총 71만9715명으로, 7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참가자 수도 2007년(1만3533명)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08년(2만106명) 2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1만9399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0년 2만454명으로 다시 2만명 대로 올라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해질녘, 바이올린 선율은 흐르고

현순이 독주회, 30일 금호아트홀

현순이 바이올린 독주회가 3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번호 12의 3’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 기교와 음악성이 요구되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금호현악사중주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던 현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코디네컷 주립대학에서 연주박사과정을 수학했다.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임리라씨가 맡는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7-331-6834.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아름다운 詩 고운 목소리로

광주시낭송가회, 내달 2일 지하철 상무역서 낭송회

광주시낭송가회(회장 이미영)가 6월 2일 오후 6시30분 광주지하철 상무역 상설무대에서 ‘제14회 빛고을 시인과 함께하는 낭송회’를 연다.

광주시도시철도공사와 광주문인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양봉모씨의 사회로 낭송가회 회원들이 참여, ‘목련꽃 누이’

(조숙형 작), ‘적녀도’(최경자 작), ‘흔적’(김산중 작) 등 아름다운 향기를 담은 시를 맑고 고운 목소리로 낭송한다. 이자영씨의 플루트 연주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숙자·장진규·정영숙·방영남·이기환·손태순·이슬하씨가 나서 시를 낭송한다. 문의 010-3666-3088. /김대성기자 bigkim@

## 제 56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p>〈심사위원〉 김혜경(조선대 교수) 김신영(목포대 교수) 신수경(전남대 교수) 조성경(남부대 교수) 박효정(한일장신대 교수)</p> <p>◇중등부</p> <p>▲최고상 91 채지연(나포3)</p> <p>▲금상 13 김시형(운림1) 42 김수진(목포여2) 56 김재선(전주예2) 58 여선정(목포문태2) 80 김하은(대성여3) 86 김승현(여천3)</p> <p>▲은상 1 최예정(상일1) 19 김지연(전주동1) 20 송명기(조선대부속2) 26 박시연(첨단2) 38 송은아(고창여2)</p>	<p>49 김연지(남악1) 64 최형지(동양3) 66 최정선(치평3) 70 이혜린(목포중앙여3) 92 박소담(대성여3)</p> <p>▲동상 4 윤성희(금호1) 5 김진영(광주동성1) 6 황민아(운암2) 11 장다은(광주1) 23 장훈화(금주2) 25 박다호(광주중앙2) 30 김은선(운남1) 33 류정인(광주중앙1) 50 환안지(광양백운2) 51 양나연(유덕2) 59 이도윤(녹동1) 75 박현욱(광양백운3) 87 박희영(광양중동3)</p> <p>◇고등부</p> <p>▲최고상 60 이신호(광주예2) 107 조영빈(전주예3)</p>	<p>▲금상 22 한원희(광주예2) 29 백송이(전주예2) 90 정여주(삼요샘여3) 92 박재연 112 양보라(첨단3) 127 송소현(조선대여3)</p> <p>▲은상 18 서봉형(전주예2) 20 김진유(전북제일2) 23 최가운(전남예1) 25 임정현(전주예2) 42 백계준(화순1) 49 한미나(광주예1) 71 이은진(광양예2) 85 조은별(삼례시여3) 86 조민정(전남여3) 94 오은파(광주경신여3) 95 홍지연(전주예3) 96 민혜진(순천청암3) 108 최보라(광주여3)</p>	<p>17 박승준(광양백운2) 24 이다선(삼례시여2) 34 오지혜(광주수피아여1) 39 이찬우(전남대사대부설2) 40 장유정(광주예1) 47 강한솔(전주예2) 48 조화원(광주여2) 56 박한결(광주예2) 58 정예슬(광주여2) 63 민다현(전주예2) 66 이황지(고려2) 79 최선정(광주경신여3) 80 김인광(광주진흥3) 84 임거건(첨단3) 91 최정혜(전남예3) 93 김아원(광주예3) 102 안혜수(전주예3) 118 고예스터(전남예3) 126 장보은(세종3) 128 이유진(국제3) 129 김다영(운남3)</p>
--	---	--	--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인물사진 2매를 6월 2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moviehelic

따뜻한 봄 즐거운 영화와 함께하세요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씨니 (15세)	1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2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2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쿵푸팬더2 (전제)	4관 쿵푸팬더2 (전제)
5관 씨니 (15세)	5관 씨니 (15세)
6관 내부 수리중	6관 삼국지: 명장 관우 (15세) / 헤드 (18세)
7관 내부 수리중	7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8관 내부 수리중	8관 삼국지: 명장 관우 (15세) / 헤드 (18세)
9관 내부 수리중	8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10관 내부 수리중	9관 쿵푸팬더2 (전제)
	10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쿵푸팬더2 (전제) <b>최고급관</b>
2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5관 쿵푸팬더2 (전제)
6관 헤드 (18세)
7관 소스코드 (12세) / 캐리비안의해적 (12세)
8관 씨니 (15세)
9관 쿵푸팬더2 (전제)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CINUS**

1관 쿵푸팬더2 (전제)
2관 쿵푸팬더2 (전제)
3관 씨니 (15세) / 헤드 (18세)
4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5관 씨니 (15세)
6관 삼국지 (15세)
7관 회초리 (12세)
8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9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